

2016년 12월 14일, 표선면 성읍1리 송순원씨 댁, 송정희 조사.
 송순원(남, 1937년생, 표선면 성읍1리)

[제보자] 나가 하나 경험이 잇는다. 나가 오십년도 초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간 때 우리 제 주도가 삼천육백 명이 한꺼번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강 교육 받았네 부대배치를 받은 후에 그때는 자기가 밥 먹어난 건 자기가 물또랑에 강 시쳐와, 식기를. 시 쳐오는데 여름 음력 음력 칠월달에 점심을 먹은 앗안 씻는다 이쪽엔 한림아이가 앗안 씻곡 난 이쪽에 앗안 식기를 영 씻는데, 물 깊이가 요정도뻬이 안 돼여. 물 또랑이 크질 안혀 졸졸 흐르는 물인데, 아 이놈이 갑자기 물더레 툭허게 빠져. 툭허게 빠지니깐 난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지. 장난인 줄 알안 난 7만히 앗안 혼 멧 초 멧 분 기다려도 안 일어나난 영 확허게 옷 심영 땡기멍

“이런 세끼 장난 장난허나?”

허멍 확허게 땡경 보니깐 이놈이 벌써 죽어불었어. 쟁 위무대 연락을 허니깐 위생병들이 와가지고 이놈이 벌써 죽엇덴 허는 거라. 아 게난 우린 제주 사름이 난에 아 차 한잔 하세요. 아, 그래 죽어불언 죽엇다고 허니깐 게민 어떻게 헐 거 엔 허니깐 이건 제주 사름이니깐 제주 사름이 지켜라고. 막사를 쳐 놔가지고 이 레 신체를 놓고 아 우리보고 지켜라고 하더라고 제주 사름이니깐 제주 사름덜이 지켜라고. 지켜는다 집에 연락을 허면은 부모네가 가야 이걸 시체를 술아드렌 허 민 술아주곡 시체를 안 술안 그냥 가정 가켄 허민 보내졌어 집으로.

보내줄 땐디 사흘이 넘언 나흘 돼도 안 간단말여 부모네가. 안 간 헤가니깐 이 사름이 쥔 몬저 뵈이 빠지나면 머리가 빠지더라고이 머리. 머리가 펜칙 빠전. 오 일이 돼가니깐 손톱 발톱이 다 빠전.

[조사자] 그거 봐집니까? 뭐라도 덮어 놔야.

[제보자] 아니 군복 입은양 그냥.

[조사자] 그 밖에마씨?

[제보자] 아니 그 천막 소굽에 낫주게. 천막 소굽에 낵 우리는 지키는 거라 영.

[조사자] 부모가 올 때까지?

[제보자] 응.

[조사자] 그거 살아그네. 화장행 보내달렌 안 헤부난 시체.

[제보자] 아 그건 부모네가 와그네 확인해사. 확인해야만 해주주. 게난 부모네가 확인혈 디만 올 디만 기다령 지켜는디 딱 칠일자 같으더라고 칠일만에, 칠일만에 가니깐 거의 이 뭐허는데 여기는 거뜰 안혀. 내복이 복장 잇는 디는이 거니깐 칠일만에 갓는디 어멍이 갓는디 아방은 돌아가시고 어멍 혼자만 사는디 어멍이 내중에 곤 는 거 보니깐 자기 혼자만 길도 모르곡 우린 그때 저 경기도 전곡에 잇는 동네 질도 모르곡 어뎡 갈 줄도 모르곡 돈도 엇곡 농촌이니깐

[조사자] 어머니가 혼자 경기도에 와야 되는 상황이구나.

[제보자] 돈 구혈려 질 안내자를 빌젠 허니깐, 자기 혼자만은 못 가니깐.

[조사자] 누구 데령 가야 하고.

[제보자] 그 사춘오빠 동생 그 오빠 자식을 빌영 가젠 허난, 그 사름 시간 맞추저. 이렇게 허다 보니깐 일주일이 걸령 딱 갓는데 간 허는게 가니깐 어멍이 자기 군복 입은 양 누웠 자기 자식 죽은 거 얼굴을 보면서 막 한탄을 허더라고. 막 손으로 강 막 땅을 치면서

“이놈아 이놈아.”

허면서 막 울어. 기냥 들어가니깐 한 십분쯤 돼니깐 이놈이 코에서 버끔이 가 끄씩 훈 번씩 나오더라고이. 멧 초에 훈 번씩 버끔이 코에서 게니깐.

[조사자] 머리 다 빠지고 손톱 다 빠졌는데.

[제보자] 응. 하 이상하다 헤그네. 아 이제 위무대에 연락을 헤가지고 사실 이런 일이 잇 다고 연락을 허니깐 위생병이 이렇게 왕 봐그네.

“아 이거 군위관을 불러봐사쿠다.”

이젠 군위관을 부르니깐 이젠 군위관이 영 봐네.

“아 이놈 죽지 안 혀. 살았다.”

는 거라. 게난 일주일이 여름철에 일주일 돼니깐 다른 사름 곁으민 다 썩을 거 주게. 솔직히 말행. 경 혈 건디 아 이젠 이젠

“아 이거 육군병원으로 호송시킨다.”

경 후송시켜네. 석 둘만에 이놈이 우리 부대에 또 돌아왔더라고. 완 곤는 거 보니깐

[조사자] 살안마씨?

[제보자] 응. 살안. 경 행 그때 오는 거 보니깐 머리도 숫자가 절반도 안 돼고 손톱 난 거 허나 발톱 난 거 허나 전부 뺨신이라. 따시 나긴 낫는데 경 허는 거 보니깐 그때 에 앓안 그릇을 영 씻노렌 허니깐 뺨발노인이 뺨말을 탕 오다네. 자기한테 오니깐 “가게.”

허멍 확 심영 땡기렌 허는 거라. 게난 자기가 말더레 씨러지고렌 행 가는데 이
백발노인이 자기 이 허리에 명주 명주를 꺼내서 칭칭 감아렌. 칭칭 감안 저 곳데
땡기면서 허는 말이

“나가 땡기는 양만 오라.”

헨, 쫓앙 가는데 가다가 보니깐 큰 강을 만났는데 강을 만났는데 강은 그냥 베
가 엇이민 지나가질 못허잖아. 경 헌디 거기는 이 사름 이렇게 넘어가는 돌멩이
가 잇더라. 쫘 물보다 높은 돌멩이가. 겐디

[조사자] 징검다리?

[제보자] 응. 그런 식으로 땡 건디 갈 때는 이 사름이 툅허게 혼 번 땡기민 요레 튀곡 또
혼 번 땡기민 요레 튀곡 허멍 이 강을 건너가는데 가네 염녀데왕에 들어갓덴 허
는 거라. 염녀데왕을 딱허게 들어가니깐.

[조사자] 땅? 염녀데왕이 있는 땅?

[제보자] 응. 염녀데왕에 들어가니깐 들어강 보니깐 그 서류 가진 놈이 앓안 졸았어렌. 잠
잤어렌. 잠 자는디 이 데령 간 사름이

“아 누굴 데려왔습네다.”

허니깐, 이놈이 확허게 일어남 문서 영 건어보더니

“아 이놈 아니라. 당신 잘못 잡아왔다. 돌려볼라.”

돌려볼렌 허난에 그 놈이 따시 그 강을 건너젼으면은 자기가 못 살아날 건디
그 염녀데왕 문 베끼딜 나오니깐 강 건너기 전인 딱허게 허는 말이

“너 이젠 가고 싶으건 가곡, 실프건 말라.”

헨, 그 놈은 딱 돌아가 버려렌, 돌아가 비난.

[조사자] 백발노인이 돌아가.

[제보자] 응. 자기 데령 갓던 사름은 그 강을 건너주지 안 현 돌아가 버런. 돌아가 버리니
깐 자기 혼자만 고민 고민허다가 옴로 튀면 갈 때 헨난 걸로 오는디 반쯤 오는
디 탁 튀멍 허는 게 여길 가질 못허니깐 물에 털어젼다는 거라. 자기가이, 물에
탁허게 떨어질 때 깨나져렌 허는 거라. 겐 이거 보렌 허멍 확허게 옷 걷은 거 보
니깐 이디 그 명주로 감아난 거 그릇이 건 죽을 때까지 안 벗어진덴. 딱 그릇이
잇어. 겐 그런 걸로 보면은 몰라.

- 핵심어 : 군대, 6·25, 백발노인, 백마, 염녀데왕, 명주, 저승